



**강기수 전북도 인재개발원 사무관, 장관상 수상**

전북도 인재개발원은 강기수 사무관이 제40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개발(HRD) 대회는 각 시·도의 우수 교수요원과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고 지자체 HRD역량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총 15팀이 참가해 서면평가를 거쳐 강의 경연 분야 10개 팀, 교육과정 개발 분야 4개 팀 등 2개 분야 총 14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강기수 사무관은 '공직, 가치있는 당신의 첫걸음'이란 주제로 공무원의 기본 자세, 마음가짐, 철학 등을 담은 경연으로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김경수 기자



**진안 동향면지사협, 사랑의김장 나눔행사**

진안군 동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수현, 이철식)는 3일 독거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 50세대에 김장김치를 담가 나누어 드리는 행복더하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가족들의 돌봄이 부족하고 외부출입이 힘든 분들의 끼니에 도움을 드리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지사협 회원 10여명은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듯 진안에서 생산한 좋은 재료로 정성껏 김치를 만들어냈다.

양수현 면장은 "가을김치로 바쁜 시기임에도 이웃을 위한 정을 나누는데 동참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밑반찬을 만들어 나누고 인부도 살펴주셔서 안심입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새마을운동 지안군지회, 사랑의김장나눔 행사**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회장 이상봉, 이하 새마을지회)는 2~3일까지 이틀간 진안을 북부미산 테마파크 광장에서 '2022년 사랑의 김장나눔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11개 읍·면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새마을지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김장김치를 담그며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온정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김장 김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 수급 가정,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이상봉 지회장은 "이웃들이 실천을 위해 봉사에 동참해준 새마을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농협, 사랑의김장나눔 행사**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은 지난 2일 장수농협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수농협직원, 장수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 35명과 함께 어우러져 정성스럽게 김장 김치를 담가 어려운 환경의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 등에 100여통의 김장김치를 전달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재학생 ·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전주대, 내년부터 의무 이수 예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 응급처치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비교과교육지원센터(센터장 신숙경)는 2019년 심폐소생술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4년에 걸쳐 학기마다 사범대학 및 교직 이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2학기부터는 보건과 재학 분야 등 심폐소생술에 대한 실무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의과대학 학생까지 확대했다.

매년 600~7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프로그램은 2022학년도 2학기에도 운영된다. 2~4월에는 사범대학 학생을 7~10월에는 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편, 전주대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정확한 대처로 학생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통한 대학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4일과 28일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완료했다.



이후 교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11월 중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전 교직원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폐소생술 수업에 참여한 한문교육과 김금희(4년) 학생은 "이번 실습으로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며, "위급상황 발생 시 배운 것을 토대로 앞장서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등특수교육과 정병호(3년)학생은 "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을 배운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배추·무 기부**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서 예비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3일 아름다운 선물을 펼쳐 화제다. 이들은 교육의 일환으로 공동재배한 김장용 배추 약 200 포기과 무 약 150개를 수확해 무주 하은의집에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한 배추와 무는 지난 3월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소한 교육생 10명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교육생 최홍기(당진시)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무주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무주에서 머무는 동안 직접 재배한 것으로 더욱 보탬이 있다"고 말했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무주군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거주시설을 비롯해 개인 텃밭, 공동경작지, 시설향유스 및



학습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참여한 교육생 10세대 10명은 토마토 재배시설 1동과 포고버섯 재배시설 1동, 감자, 옥수수,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공동경작지 1곳에서 영농 재배기술과 농산물 유통, 귀농·귀촌을 위한 지역 탐사 등 다양한 이론·실습 교육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은행, 군산초교에 'JB옐로우 카펫 제7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군산초등학교에서 JB옐로우 카펫 제7호 오픈식을 3일 실시했다.

오픈식에는 군산시 이준연 교통시설계장, 군산초등학교 장현수 교감,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 최종구 수송동지점장, 정영민 군산시청영업점장 등이 참석했다.

군산초등학교는 대부분의 이동들이 정문 맞은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군산의 10월로 우 카펫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등하교시 이동들이 무심코 도로를 건너지 않고 운전자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군산시와 협의를 통해 학교 정문 횡단보도에 이동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노란색 바탕의 JB옐로우 카펫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등하교시 이동들이 무심코 도로를 건너지 않고 운전자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800여 명의 재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세심히 살피고 이익을 적 극적으로 환원하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 무주지부, 사과 수확 철 맞아 일손돕기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오영석)는 3일 본격적 사과(부사) 수확기를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농협 친환경유용사과밭을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농협 임직원 15명은 사과밭을 하차·선별·포장 작업을 하면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함께 맛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오영석 지부장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범농협 차원의 다양한 영농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협 순창지부, 농가주부모임과 영농폐기물 수거**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는 순창농협(조합장 선재식), 농가주부모임(회장 박영옥)과 함께 3일 순창군 인계면 일대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농촌 일손돕기 등 농촌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은 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농작업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와 고추대, 지주대 정리 등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정재호 본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공간 조성하고 농촌마을 경관개선 및 보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학생들, 발전기금 전달**

전주대학교 경기지도학과 태권도시범단 학생 일동은 지난 2일 발전기금 2,038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태권도시범단 학생 27명과 박진배 총장 홍성덕 대외부총장, 최광근 교수 이숙경 교수 등이 참석했다.

태권도시범단 주장을 맡고 있는 김태진 학생(경기지도학과 4년)은 "교수님들의 좋은 가르침 덕분에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 같다"며 "자부심을 갖고 성과를 내준 시범단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박진배 총장은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늘 자랑스럽다"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모인 기금을 학과와 학교발전을 위한 소중한 곳에 의미있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용남고 간호동아리 학생 초청 재능 봉사**

전주비전대학교 오미숙 교수(간호학부)는 지난 2일 충남 계룡의 용남고등학교 간호동아리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평소 간호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간호시뮬레이션 실습과 다양한 인체 실습모형 및 실습기자재들을 이용해 핵심간호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또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학생들이 직접 실습 과정을 참관하며 알려줬다.

전주비전대는 최첨단 시스템과 다양한 임상간호 위한 각종 실습 모형 및 기자재 등을 구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동충동, 동절기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남원시 동충동동장 김은영은 최근 기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관내 7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전기·난방시설과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일러, 난로 등 난방시설 작동여부 및 내·외부 시설을 점검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화재 예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시설 가동을 당부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독감·폐렴 겨울철 인건사고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경영개선지원 사업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가 경영개선지원 사업 평가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강소농 사업의 교육성과와 자율모임체 활동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남원시는 강소농 교육을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도 zoom을 활용하는 비대면으로 실시간 교육하고 거리두기가 완화 후에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랜딩페이지 제작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자율모임체 활동으로 팜마켓, 프리마켓, 정보화 교육 기초, 중급 왕초보반도 운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